



## “기업보안 및 경비절감의 실질적 해법 제공”

첨단 기업 비즈니스 환경 엿볼 수 있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솔루션룸’ 을 찾아서...

하드웨어사업에서 통합문서관리서비스 사업으로 전환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대표 · 김천주, [www.canon-bs.co.kr](http://www.canon-bs.co.kr))은 문서보안, 통합관리, 전자문서관리 등 기업의 문서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솔루션과 전문 인력인 ‘컨설턴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실한 경쟁우위를 보이겠다는 각오이다. 캐논코리아측은 이 같은 의지를 반영하듯 지난 10월 본사 비즈니스 플라자 내에 캐논코리아의 통합문서관리시스템의 기술력을 집약해 놓은 ‘솔루션룸’을 새롭게 단장하고 첨단 기업 비즈니스 환경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솔루션지원팀의 박정우 과장의 안내를 받아 솔루션룸의 면면을 살펴본다.

취재 | 박지연 기자 |



▶ 김천주 사장

복사기 및 디지털복합기 메이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문서관리 아웃소싱’ 업체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 이 회사에서는 단순히 문서 출력에 대한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문서관련 업무 컨설팅을 통해 업무환경을 고도화시키고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에 불어닥친 디지털 혁명은 기업 환경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각종 자료들이 디지털화·네트워크화 되면서 이에 따른 보안유출사고에 대한 대비, 복합기와 프린터기의 구입 및 유지, 소모품 비용 등이 큰 부담으로 다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안 찾기에 골몰하게 됐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캐논코리아는 하드웨어사업에서 통합문서관리서비스사업으로 전환하여 지난 몇 년간 기업 문서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문서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문서관련 아웃소싱 업체로서의 이미지 재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캐논코리아의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 마련된 비즈니스 플라자에 가보면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캐논코리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솔루션룸'에서 미래 기업 환경의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솔루션룸에는 캐논의 독자기술인 밍(MEAP: Multifunctional Embedded Application Platform)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편리함과 비용 절감, 그리고 문서 보안에 관련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밍은 복합기 내에서 소비자의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장비의 추가 구매의 부담 없이도 언제나 최신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한 자바언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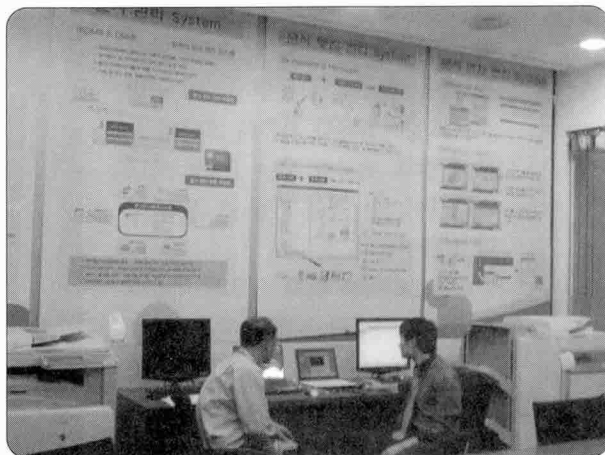
솔루션룸에는 문서복합기에서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IC카드 인증 솔루션을 비롯하여 감시 단어 지정으로 보안검색이 가능한 복합기 통합 문서관리 솔루션 'CIMS',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뒤 원하는 파일 포맷(워드, 엑셀, 한글, PDF 등)으로 변환시켜 주는 '오피스스캔 V2'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IC카드 인증 솔루션과 통합문서관리 솔루션(CIMS). 기존에는 복사기나 팩스 같은 복합기에 보안을 위해 숫자를 입력해야만 하는 장치를 사용했다. 물론 이런 장치는 타인이 해당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증된 사용자들 또한 그 번거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밍에 적용된 IC카드 인증시스템을 사용하면 복합기를 사용하기 위해 암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자신의 신분증만 갖다 대면 사용자 인증이 끝나고 해당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입장에서는 개인별 또는 부서별 사용량 집계를 낼 수 있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종이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신분증을 사용해 복합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사용시간과 인적사항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남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유리하다. 특히 여러 명이 프린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상황에서 중요한 문서를 출력할 경우에 IC카드 인증시스템을 사용

하면 PC에서 인쇄명령을 내린 후 프린터로 이동해 IC카드를 접촉해야만 출력물을 얻을 수 있어 자신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 경우 출력물이 회사 기밀이어서 관리자가 애로사항을 겪을 수도 있는데, 캐논 밍 시스템은 팩스로 받거나 인쇄 및 복사한 모든 결과물을 내장된 OCR(글자 판독기)로 읽어낸 후 서버에 저장한다. 그리고 필요시 '보안' '기밀' '대외비'와 같은 감시단어를 설정하여, 이러한 글자가 포함됐다고 판정하면 시스템 관리자에게 알리고, 해당 작업을 한 직원에게는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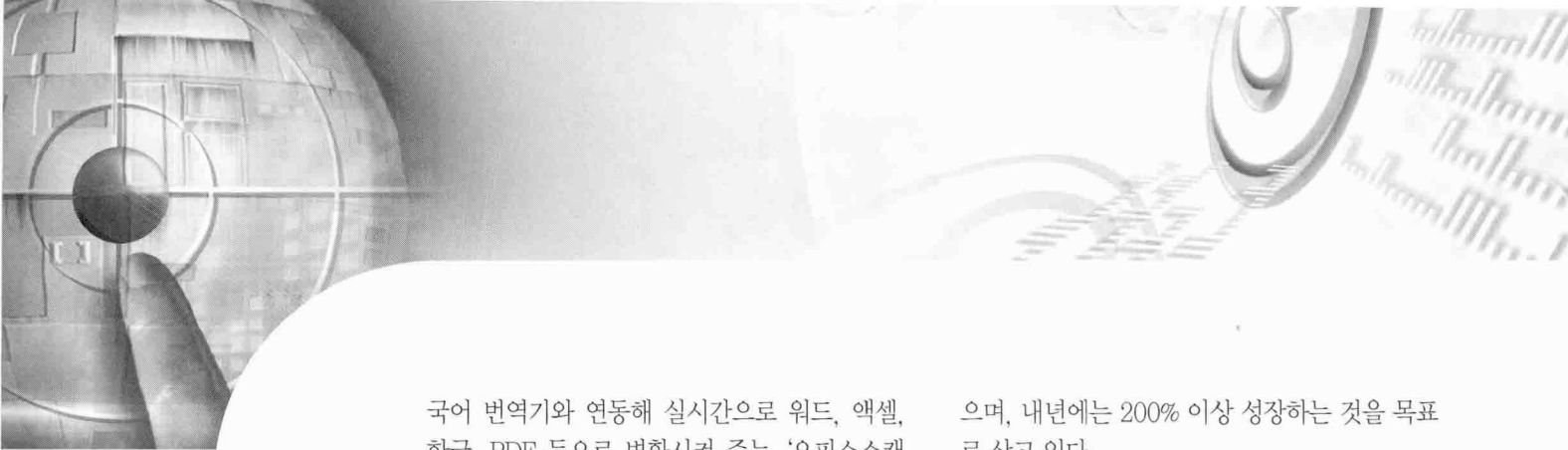
이외에 문서 복사를 통해 읽어들이는 자료를 외



▶ 본사 2층 PS&MEAP전시장 안쪽에 위치해 있는 솔루션룸 전경



▶ 캐논코리아의 솔루션복합기는 IC카드만 대면 보안인증이 되어 기업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국어 번역기와 연동해 실시간으로 워드, 엑셀, 한글, PDF 등으로 변환시켜 주는 ‘오피스스캔 V2’도 빼놓을 수 없는 캐논코리아의 자랑할만한 기술이다. 한글, 일본어, 영어 등을 복사하면서 눈 깜짝할 새에 OCR을 통해 자동으로 워드 파일 등으로 저장되고 번역까지 되어 출력되는 상황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중앙 전산실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각 지방 지사에 위치한 복합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정우 과장은 “캐논의 통합관리 솔루션은 기업 활동에 있어 경비절감과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라며 “특히 경쟁사들처럼 기본 엔진을 외국에서 들여와 주문에 맞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연구진이 국내 소프트웨어업체와 제휴해 고객의 요구에 맞춰 제작해 주는 100% 국내 솔루션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캐논코리아는 현재 솔루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의 주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EDMS)업체, 디지털문서보안(DRM)업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관련업체, 보안업체 등 전문업체들과 협력관계에 있으며, 이를 통해 통합관리솔루션을 제공받는 업체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우 과장은 “네트워크 기사 자격증은 기본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컨설턴트’들이 기업의 문서사용패턴, 업무패턴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사무실 문서의 생성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시장에서의 자신감을 나타냈다.

캐논코리아는 올해 솔루션 부문만 작년 대비 140% 성장을 기대하고 있

으며, 내년에는 200% 이상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천주 사장은 “현재 사무기기 전 영역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한 업체는 캐논이 유일하다.”며 “탄탄한 기술력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의 경비절감을 위한 최상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문서관리 컨설팅업체로서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지난 1985년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이 합작 설립한 (주)롯데캐논을 전신으로 하는 디지털입출력 통합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난 2006년 3월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 중앙 전산실을 통해 각 지사의 복합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지하 1층에는 일반 소비자용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